

<2021년 11월 3일 수요말씀 추가>

* 해당되는 말씀 부분에 추가해서 전해주기

- <키가 큰 소나무들>을 자르면 아주 멋진 ‘작품 숲’ 이 됩니다.
그같이 해 놓으니, 너무나 속이 시원시원했습니다.

- 하나님과 성령님은

“그와 같이 <자기를 만드는 것>이 그리도 ‘기쁜 일’ 이다.
영에게 영원토록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는데 소홀히 하고,
자기 영육을 ‘하나님의 뜻’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.

- 하나님은 선생님이 <기도동산 소나무>에서
<인대산>을 보게 하시며,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.

<인대산>은 ‘나 여호와와 주와 같이 전설을 이룬 산’ 이다.
<나 여호와>와 <시대 보낸 자>를 상징한 산이다.
고로 ‘소나무’ 가 ‘전설의 산’ 을 가리면 안 된다.

<대둔산>도 마찬가지다.

<전설을 이룬 삼위>와 <그 보낸 자>를 상징한 산이다.

고로 ‘가리고 있는 나무’ 를 잘라서 산이 잘 보이게 해라.
자르면, <나무>도 ‘작품’ 이 된다.

<소나무들>이 ‘어릴 때’ 는 산을 가리지 않지만,

‘크면 클수록’ 산을 가려서 답답하다.

특히 <명산, 전설의 산>을 가리면,
‘그 산’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.

이와 같이 <섬리사람들>도 ‘어릴 때’는 그렇지 않다가도
클수록 ‘자기중심’과 ‘자기 주관’과 ‘자기 마음’이 자라서
<삼위일체>를 가리게 되고, <그 보낸 사명자, 주>를 가리게 된다.

<삼위와 주>가 안 보이면 답답하고,
저마다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생각’을 못 하게 되니
‘힘’이 없게 된다.

그러므로 <삼위와 주를 가리는 자들>은
나 여호와가 <전설의 산을 가린 소나무>를 가지치기하듯 자르고
특히 ‘하늘로 솟은 중심 가지들’을 자르듯 자른다.

<인대산을 가리고 있던 소나무들>은
‘자기를 중심하고 자기 사고로 행하는 자들’을 상징한다.

<나무>도 ‘가지치기’를 해 줘야 ‘대(大)결작 술’이 되듯이,
<신앙>도 ‘자기모순’을 가지치기하듯 잘라야,
‘결작 신앙’이 된다.

- 선생님이 <기도표적 소나무>에서 기도할 때,
하나님과 성령님이 ‘인대산을 가리고 있는 소나무들’을
모두 자르라고 하셔서 이같이 많이 잘랐습니다.

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은

〈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가리는 자들〉을

‘소나무’를 가지치기하듯이, 모두 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.